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나, 어떤가요? (1000자 이내)

사람들 사이의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 보니 중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 같다. 대략 중학교 2학년 전에는 많이 소심했고, 중학교 2학년을 겪으며 매우 친화력이 좋아졌다. 바뀌는 데에는 딱히 특별한 계기는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즈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접해봐서 (친구의 친구들) 그랬던 것만 같다. 친화력이 좋은 지금의 나는, 사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또한 집에서 빈둥거리기를 좋아한다. 웃긴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친구들과 약속이 잡히면 만나기 싫어지고, 약속에 나가기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모순적인 나는 어느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 가족들과 있을 땐 주로 들어주며 내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다. 왜인지 모르게 가족들에게는 내가 힘든, 혹은 즐거운 이야기를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일이 확정이 되면 얘기를 꺼내게 된다. 또한 슬픈 얘기는 아예 꽁꽁 묵혀둔다. 또한 나는 같이 있는 사람이 3명이 넘어가는 걸 싫어한다.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든다. 두 명이 가장 좋긴 하다. 난 친한 친구들이더라도 세 명 이상 있으면 말이 줄어든다. 리드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 끄덕여준다.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고,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의욕도 줄어든다. 또한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무리에 있으면 급격히 소심해진다. 의견을 잘 내지 못하고, 틀릴까봐 불안해한다.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있을 땐 도저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친구와 단 둘이 있으면 말을 정말 많이 한다. 별의별 사소한 얘기까지 구구절절 한다. 그래서 처음보는 사람들은 날 보며 “너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듣고는 한다. 나는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를 얻지만, 사람들과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는 그러한 사람이다.